

## Q 방법론을 활용한 대학생의 학교애착 인식 유형 연구\*

이 동 욱                      이 송 이<sup>†</sup>  
건양대학교 연구교수      동국대학교 부교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중도탈락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학교애착을 심도있게 살펴보기 위하여, 대학생의 학교애착 인식 유형을 Q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류하고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 분석 및 심층 면담을 통해 Q 모집단을 구성 후 총 40문항의 Q 표본을 확정하였다. 이후 대학생 32명을 눈덩이표집을 통해 P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Q 표본 분류는 11점 척도 분포도 내에서 강제배분방식을 통하여 참여한 P 표본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 Q 표본을 동의 수준에 따라 배치하게 하였으며, 가장 동의 및 비동의한 문항 2개씩 선택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QUANL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학교애착 인식 유형은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고, 각 유형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유형명을 명명하였다. 1유형은 ‘주도적으로 학교생활하며 성장하는 안정형’으로, 학업 만족도가 높고 다양한 교내 활동을 하며 대인관계도 안정적으로 형성한 모습을 나타냈다. 2유형은 ‘학교에 적응하려 애쓰지만, 한계는 수용하기 어려운 양가형’으로 다양한 교내·외 활동에 참여하고 대인관계가 안정적인 편이지만, 지방 사립대학의 한계점을 수용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3유형은 ‘학교의 장점은 인정하지만, 친밀감 형성은 어려운 불안정형’으로 대학의 장점을 인식하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학 적응과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나타냈다. 4유형은 ‘학교생활의 문제 인식은 있지만, 소속감 없는 회피형’으로 학교 생활 관련 비용, 성적, 취업 등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성과, 보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학교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의 학교애착 인식 유형별 특성과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학교애착 유형별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유형별 특성 이해 및 맞춤 지원을 위한 자료로서의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대학생, 학교애착, 학교애착 인식유형, Q 방법론

\* 본 원고는 이동욱(2023)의 박사학위논문을 일부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송이,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코칭학과,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Tel: (02)2260-3633, E-mail: songyilee@empas.com

‘22년 3월 교육부(<https://www.moe.go.kr>)는 ‘폐교대학 청산 지원 용자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의 주목적은 원활한 폐교 및 신속한 청산 지원을 통한 대학 구성원 보호이며, 교육부 산하 한국사학진흥재단에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를 설립하여 수행하고 있다. 교육부가 폐교대학 청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속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대학 폐교가 본격화되었다는 것을 시사하여 이 사업이 주는 의미가 남다르다. 이러한 대학의 위기는 미국, 일본 등도 경험하는 현상이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단기간에 한계대학, 부실대학 및 폐교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라는 차이가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20). 이러한 위기를 불러 온 가장 큰 원인은 출산율의 지속적인 저하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이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는 대학의 입장에서 어떤 노력도 할 수 없는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다. 따라서 대학의 입장에서 노력을 통하여 이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찾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하다.

학령인구 감소 외에 대학의 내·외적인 위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중도탈락(dropout)(연보라, 장희원, 2015)이라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정부의 재정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에서 중도탈락은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낮은 평가를 받아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되는 경우, 교육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신입생 확보와 재학생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재학생 유지의 실패로 나타나는 중도탈락은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이어져,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초래한다.

이는 재정 수입의 상당한 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학에 있어서는 대학 존립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노윤정, 2022)는 점에서 대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중도탈락은 대학 뿐만 아니라 중도탈락을 선택한 학생 개인, 대학 소재 지역, 사회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학생 개인 측면에서 중도탈락은 교육경력의 단절을 의미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고, 보다 나은 직업의 획득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보상의 지연, 손해를 가져온다(김수연, 2006; Fike & Fike, 2008). 대학 소재 지역 측면에서 수도권, 지방 대도시보다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지방 소도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이기중, 2015).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인적 자본의 노동력이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김수연, 2006).

이를 통해 대학생의 중도탈락 관리, 예방은 현시대의 대학과 사회에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학생의 중도탈락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학교애착(school attachment)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학교애착은 학생 스스로가 학교의 일부라는 생각으로 학교에 정서적 애착을 갖는 것(Jimerson et al., 2003)으로, 학교 경험과 학생을 연결하는 여러 측면을 포괄하는 학교 내 사회적 자본으로 논의되기도 한다(Yu, 2021). 대학은 학문적 목적만을 공유하는 공간이 아닌 생활 공동체로서 학생들의 사회화 과정이 이뤄지는 곳(이하연 외, 2021)이므로, 이런 사회화 과정 속에서 애착도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무엇보다 성인 초기인 대학생 시기에는 다양한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안전기지(secure base)가 발생하기 때문에 애착관계가 변

화될 수 있는 강점이 있는 시기이다(박신영, 2018). 대학생은 대학에 입학하여 초, 중, 고등학교와는 다른 학업 방식과 생활 방식, 사회 생활, 역량개발 및 취업 준비 등 다양한 경험을 하며 성인으로 성장해간다. 그러나 중, 고등학생 시절 입시위주의 생활을 하며 청소년기 발달과업인 정체성 형성과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한채 대학생이 되어 대학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이운주 외, 2004). 대학생이 학교와 형성한 학교애착은 그들의 학교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대학생활 전반에 걸쳐 안정적으로 적응하는 데 있어 학교애착은 중요하고(박신영, 2018; 이운주 외, 2004; Tao et al., 2000), 대학에 대한 애착이 클수록 학교생활 및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는 등 학교발전과 학교에 대한 지지적 태도를 설명할 수 있다(박관도, 김학덕, 2017). 또한, 교내 또래, 교수자 등 대인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Savi & Karata, 2017), 대인관계 등 피해 회복을 촉진하며(Yu, 2021), 중도탈락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 대학생활 지속 여부와 학위취득 등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다(Baker & Sirky, 1984).

Ainsworth 등(1978), Bartholomew와 Horowitz (1991) 등 많은 연구자는 애착은 양적 측면 보다 질적인 측면에서 유형에 따른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국내 선행연구에서 다양한 스트레스, 우울 등의 상황에서 안정 애착이 불안정 애착보다 적절히 대처하며(김광은, 2004), 안정형은 불안정 애착에 비해 대학 적응 수준이 높는데(이운주 외, 2004), 거부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사회적으로 부적응하는 모습을(신선임, 2015) 나타내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애착은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는 질적 특성이 중요하다(장휘숙, 1997)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연구들은 대인관계 측면의 애착 유형을 활용하거나, 학교애착 양적 척도를 활용한 양적 연구가 다수였고, 학교애착과 유사한 학교소속감의 하위요인으로 학교애착을 설정하여 적은 문항으로 학교애착을 양적으로 측정하여, 대학생의 학교애착을 유형에 따라 심도깊게 살펴볼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중도탈락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므로, 대학생 학교애착 유형을 심도깊게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학생의 학교애착을 심도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관성을 탐구해야 하는데, 사람은 의식을 하던지 안 하던지 느낌, 태도, 의견, 선호, 신념 등에 따라 행동하고 선택하기 때문이다(최경선, 2019).

이에 본 연구는 자아참조적 주관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데 용이한 Q 방법론을 활용하여 지방 사립대학 재학생의 학교애착 인식 유형이 어떻게 분류되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인관계 측면의 애착 유형처럼 재학생의 학교애착 인식 유형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학교애착 인식 유형에 따라 대학에서의 지원 방안 마련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학교애착 인식 유형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둘째, 대학생의 학교애착에 대한 각 인식 유형의 특성은 어떠한가?

## 연구방법

Q 방법론은 특정 주제에 대한 사람이 가지

표 1. 연구 절차

	절차명	연구 기간	주요 내용
1	Q 모집단 구성	'21. 12 ~ '22. 5	문헌분석, 심층면담
2	Q 표본 구성	'22. 5 ~ '22. 6	40문항
3	P 표본 구성	'22. 6	32명
4	Q 표본 분류	'22. 6 ~ '22. 7	P 표본에 의한 Q 표본 분류
5	자료 처리 및 분석	'22. 7 ~ '22. 8	분류 결과 분석

고 있는 생각, 인식, 태도 등에 대한 주관적 관점을 유형화 하고 그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다(김홍규, 2008). Q 방법론은 유형화 한다는 측면에서 양적연구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연구참여자인 P 표본의 깊이 있는 주관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질적연구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Brown, 1996; Dennis & Goldberg, 1996; Stenner et al., 2000).

Q 방법론의 방법론적 장점은 개인의 주관성 관련 체계적 연구를 위한 기초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이다(길병욱 외, 2020).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스스로의 관점에서 학교애착에 대한 인식을 유형으로 구조화할 수 있으며, 그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부합한다. 본 연구의 연구절차는 표 1과 같다.

### Q 모집단 구성

Q 모집단이란 Q 연구를 위해 수집된 항목의 집합체로서 한 문화 안에서 공유되는 의견의 총체를 뜻한다(김홍규, 2008). 일반적으로 Q 모집단을 수집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방법은 면담, 문헌분석, 관찰 등을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문헌분석과 심층면담을 통해서 수집하였다. 문헌분석은 학교애착 및

대학생, 청소년의 애착 외에도 장소애착과 조직애착 등 다양한 애착 관련 국내·외 학술지 및 석·박사 학위논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될 수 있는 한 교내 활동에 참여하고자 노력한다’(이하연 외, 2021), ‘우리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느낀다’(Savi & Karatas, 2017) 등 총 388개를 수집하였다. 심층면담은 ‘22년 4월 6일부터 29일까지 대학생 5명, 교수 및 대학직원 각 1명, 학부모 1명 등 지방 사립대학교와 관련된 8명을 대상으로 비대면(Zoom)으로 진행하였다. 면담은 사전에 제작한 ‘학교는 귀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등 총 12개 질문을 통해 반구조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우리학교가 타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길 바란다’, ‘학교는 학생 복지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등 총 232개를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총 620개의 Q 모집단을 구성하였고, 선행 연구를 토대로 Q 모집단의 구성 범주를 심리정서적 측면의 ‘정서’, 대인관계 측면의 ‘교내·외 대인관계’, 행동적 측면의 ‘관심과 참여’, 진로 측면의 ‘성장과 진로 기대감’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또한, Q 모집단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나타난 특성 중 이 네 가지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 Q 방법론의 Q 표본 범주 도출 시 연구자의 자결적 범주

를 구성할 수 있는 특성(김유천, 2022)을 고려하여, 본 연구자의 자결적 정의를 토대로 적용적 측면의 ‘학교 및 학업 적응’, 학교에 대한 ‘평가와 평판’ 두가지 범주를 추가하였다.

### Q 표본 선정

Q 표본은 Q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진술문으로 P 표본들이 분류하게 될 자료가 된다. 연구 대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40개에서 60개(김순은, 2010; Brown, 1996)가 적당하다. Q 표본을 선정하는 것은 Q 방법론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Q 표본에 의해 연구 결과가 좌우되기 때문이다(김홍규, 2008). 본 연구는 Q 표본을 선정하기 위하여 Q 모집단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중복되거나 뜻이 모호하거나, 대학생 수준에 맞지 않는 것 등을 삭제, 통합, 수정의 과정을 거쳤다. 또한, 학교애착 Q 모집단의 각 범주가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근거하여, Q 표본 내 비율을 고려하고, 각 진술문이 긍정, 부정, 중립의 성격이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하였다. 이어서 Q 방법론 전문 서적 집필 및 연구 경험이 있는 연구자 3인과 검토를 통하여 Q 표본 40개를 선정하였다. 이후 연구 대상 대학 재학생 두 명을 대상으로 사전 검사를 진행하여, 가독성, 이해도 등을 확인하였다. Q 표본 신뢰도는 시간차를 두고 검사-재검사를 실시하며, 참여자의 2개 소트에 대한 상관관계 계수를 구한 후 평균값을 계산한다(김유천, 2022). 본 연구는 재학생 3명을 대상으로 ‘22년 6월 9일부터 16일까지 재검사 시기를 각각 달리하여, 참여 당일, 삼 일 후, 일주일 후에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신뢰도 평균  $r=0.895$ 로 나타나 신뢰로운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이러

한 과정을 통해 표 2의 최종 40개의 Q 표본을 확정하였다.

### P 표본 구성

P 표본은 Q 표본을 분류하기 위해 연구에 참여하는 참여자를 뜻한다. P 표본은 연구의 목적과 관련된 연구 대상자들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30명에서 50명이 적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길병욱 외, 2020). 연구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본 연구의 서론에서 살펴보았듯 비수도권 소도시에 위치한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시의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경북 G시 소재 D사립대학의 재학생을 P 표본으로 설정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한 P 표본을 통해 다른 재학생을 소개받는 눈덩이 표집방법으로 P 표본 32명을 구성하였다. 학과 계열은 대학알리미(<https://www.academyinfo.go.kr>)의 학과 ‘표준분류 정보’ 내 5가지 대분류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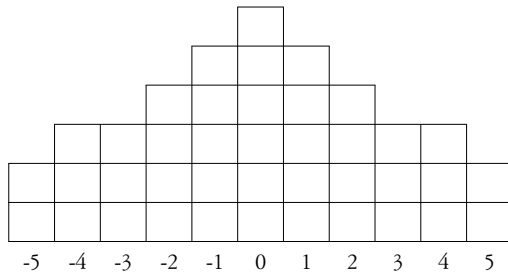
### Q 표본 분류

Q 표본 분류는 P 표본이 Q 표본을 읽고 분포도 내에 Q 표본을 분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Q 분류는 강제배분방식(forced distribution) 방식이며, 강제배분 방식은 Q 방법론에서 전통적으로 선호되는 방식이다(김순은, 2007; Brown, 1996). 이 방식을 통하여, Q 방법론은 개인 간의 차이가 아닌 개인 내의 차이를 다루게 된다(길병욱 외, 2020). Q 표본 분류는 P 표본 32명을 대상으로 ‘22년 6월 17일부터 7월 11일까지 참여 방법 안내문과 Q 표본 카드 및 인적사항 질문지와 그림 1의 Q 표본 분류도를 이메일로 발송하여 P 표본 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표 2. Q 표본

번호	진술문	번호	진술문
1	나는 우리 대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편이다.	21	학교에서는 시간이 더디게 가는 것 같다.
2	나는 학과 동기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느껴진다.	22	대학 내 다양한 프로그램, 이벤트에 참여하려 노력한다.
3	나는 우리 대학에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	23	학교에서 존중받고 있다고 느낀다.
4	교통 여건이 좋지 않아, 학교에 정이 잘 안 간다.	24	대학 생활을 통해 성취하고 있는 게 부족하다고 느낀다.
5	학교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안다.	25	지방에 있어서, 대외활동 경험에 한계를 느낀다.
6	교수님들은 내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고 가르친다.	26	학업, 역량 계발을 위해 필요한 학교의 지원이 충분하다.
7	지역 공공기관 지역인재전형 등 지방대학의 이점이 좋게 느껴진다.	27	학교의 문제, 어려움이 나의 것처럼 여겨진다.
8	부모님은 우리 학교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28	내가 학교를 그만둔다면, 아쉬워할 동기나 선·후배가 있다.
9	학비, 주거 등 대학 관련 비용 부담으로 학교에 관심을 두기 어렵다.	29	수도권 대학과 우리 대학을 자주 비교한다.
10	대학 공부를 스스로 해나가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30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진다.
11	대외활동, 취업 시 대학 인지도의 영향을 받게 될까 걱정된다.	31	우리 대학은 조금만 노력해도 장학금,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12	학교, 전공이 맞지 않아, 자퇴나 편입을 종종 생각하게 된다.	32	학교 직원들의 사무적인 태도가 종종 불편하게 느껴진다.
13	어려움이 생겼을 때 상담할 수 있는 교수님이 있다.	33	나는 우리 학교에 자부심을 느낀다.
14	학교를 생각하면 피곤한 기분이 든다.	34	학교 주변이 변화가 아니라는 아쉬움을 종종 느낀다.
15	다른 사람에게 우리 대학 입학을 추천할 수 있다.	35	대학 내 인간관계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16	대학 내 시설물, 공용물품을 소중히 다루려고 한다.	36	학교의 입장에서, 나는 수많은 학생 중 한 명일 뿐일 것이다.
17	가끔 교수님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낀다.	37	대학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
18	가끔 학교, 학과의 미래가 신경이 쓰인다.	38	학교를 졸업하면, 학교가 그리울 것 같다.
19	성적, 과제에 대한 압박이 자주 느껴진다.	39	대학 내 취(창)업과 관련되지 않은 활동은 불필요하게 느껴진다.
20	대학은 취(창)업을 위해 거쳐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40	중, 고등학교 친구와 대학 친구를 종종 비교하게 된다.



가장 동의하지 않음 <— 중립 —> 가장 동의함  
 그림 1. Q 표본 분류 분포도

로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다. Q 표본 분류 과정은 길병욱 외(2020)의 분류 과정을 따랐으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P 표본이 참여 방법 안내문을 읽고, 연구의 목적, 분류 방법을 구체적으로 인지하도록 하였다. 둘째, Q 표본을 모두 읽은 후 각 표본에 대한 동의, 비동의 여부에 따라, 동의는 오른쪽에 비동의는 왼쪽에 분류하도록 하였다. 잘 모르거나 동의, 비동의를 분류하기 어려운 중립적으로 여겨지는 Q 표본은 가운데에 분류하도록 하였다. 셋째, 분류한 것들을 다시 확인하며, Q 표본 분류 분포도에 가장 동의하는 Q 표본 2개는 가장 오른쪽, 가장 동의하지 않는 Q 표본 2개는 가장 왼쪽에 배치하고 동의 및 비동의 수준이 낮을수록 가운데 중립을 향해 배치하도록 하였다. 넷째, Q 분포도를 보며 배치를 바꾸고 싶은 경우, 바꿀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장 동의한 2개와 가장 동의하지 않는 2개, 총 4개 Q 표본의 진술문을 분류한 이유에 대하여 Q 표본 분류 기재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자료처리 및 분석

수집된 32개의 Q 표본 분류 자료는 가장

동의하지 않음 1점에서부터 가장 동의함 11점까지로 코딩하여, 자료파일을 작성하였다. 이 자료 파일 분석을 위해 PC용 QUANL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Q 요인 추출을 위해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아이겐값(Eigen Value) 최소 기준치인 1.000을 기준으로 각 요인을 산출하고, 각 진술문의 점수는 표준점수(Z-score)로 처리하였다. 배리맥스회전(Varimax rotation)은 요인이 잘 구분되는 축을 찾아 다차원적으로 회전하는 요인회전으로, 추출된 요인 속에 가능한 다수의 P 표본을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주관적 인식이 유사한 참여자들끼리 유형이 분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연구결과

유형별 분류

Q 방법론을 활용하여, 지방 사립대학 재학생의 학교 애착 유형을 분류한 결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표 3은 네 가지 유형의 아이겐 값과 설명 변량을 나타내고 있다. 각 유형의 아이겐 값은 1유형이 7.8105, 2유형이 3.1514, 3유형이 2.4417, 4유형이 2.0619로 나타났다. 전체 48.19%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표 3. 유형별 아이겐 값과 설명 변량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CHOSEN EIGENVALUES	7.8105	3.1514	2.4417	2.0169
TOTAL VARIANCE	.2441	0.985	.0763	.0630
CUMULATIVE	.2441	.3426	.4189	.4819

표 4. 유형간 상관관계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1유형	1.000	.341	.179	.042
2유형		1.000	.260	.336
3유형			1.000	.131
4유형				1.000

각 유형 간 상관관계는 각 유형간의 유사성 정도를 보여준다. 학교애착 인식 유형간 상관관계는 표 4와 같다. 1유형과 2유형은 .341, 1유형과 3유형은 .179, 1유형과 4유형은 .042, 2유형과 3유형은 .260, 2유형과 4유형은 .336, 3유형과 4유형은 .131로 나타났다.

유형별 인자가중치가 높은 P 표본일수록 해당 유형의 전형적인 사람으로, 그 요인의 특성을 많이 지닌 사람임을 의미한다. 유형별 인자가중치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위의 표 5와 같다.

#### 학교애착 인식 유형별 특성

네 가지 유형의 특성은 유형별 표준점수  $\pm 1.00$  이상의 진술문 항목과 타 유형의 평균과 차이가 표준점수  $\pm 1.00$  이상의 진술문 항목, 각 유형에서 인자가중치가 높은 P 표본의 Q 표본 분류 사유 및 인자가중치가 제일 높은 P 표본과의 후속 면담을 통하여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 결과에 더해 관련 선행연구 및 대인 관계 측면의 애착 유형명을 참고하여, 유형명을 명명하였다.

#### 가. 1유형(N=12) : 주도적으로 학교생활하며 성장하는 안정형

1유형은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전공에 대한

만족감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성장감을 느끼며, 학교에 대해 만족감을 형성한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주도적으로 학교 생활하며 성장하는 안정형’으로 명명하였으며, 명명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유형의 표준점수  $\pm 1.00$  이상의 진술문 항목은 표 6과 같다. 1유형은 Q10의 ‘대학 공부를 스스로 해나가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z=1.86$ )’에서 가장 강한 동의를 나타냈고, Q8 ‘부모님은 우리 학교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z=1.29$ )’, Q23 ‘학교에서 존중받고 있다고 느낀다( $z=1.25$ )’, Q22 ‘대학 내 다양한 프로그램, 이벤트에 참여하려 노력한다( $z=1.25$ )’ 등에서 강한 동의를 나타냈다. 반면, Q12 ‘학교, 전공이 맞지 않아, 자퇴나 편입을 종종 생각하게 된다( $z=-2.04$ )’를 가장 강하게 비동의하였고, Q17 ‘가끔 교수님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낀다( $z=-1.91$ )’, Q2 ‘나는 학과 동기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느껴진다( $z=-1.80$ )’ 등에서 강한 비동의를 나타냈다.

둘째, 1유형에서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P30(3.5938)과 P31(3.1049)이 Q 표본 분류에서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 및 P30과 전화로 진행한 후속 면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P30은 Q10과 Q22를 가장 동의한 이유로 ‘스스로 전공과목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 성취도 만족하고 있다. 또한,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공부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고 느끼고 있다. 학기 중에 봉사활동, 교내 근로 활동, 동아리 등 많은 활동을 하며 경험을 쌓고 있다’고 하였다. 반면, P30과 P31 모두 Q12를 가장 비동의한 이유로 P31은 ‘과제 관련하여 교수님께 검토 받을 일이 자주 있는데, 비난보다는 칭찬을 자주 받고 있어서 무시당한

표 5. 유형별 인자가중치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

유형	P표본 번호	인자 가중치	성별	학년	학과 계열	주거형태	교내 활동 참여 경험		
							동아리	교수상담	상담프로그램
1유형 N=12	1	.8690	여	4	인문사회	통학	X	O	O
	4	1.1249	여	2	인문사회	기숙사	X	X	O
	7	.6619	여	2	인문사회	자취·하숙	O	O	O
	8	1.0698	여	2	인문사회	통학	O	O	O
	9	1.0988	여	2	인문사회	통학	X	O	O
	16	.5886	여	4	자연과학	기숙사	O	O	O
	19	.3636	여	3	인문사회	통학	X	O	O
	22	.8830	여	1	인문사회	기숙사	O	O	O
	27	.1824	여	4	인문사회	통학	X	O	O
	29	.5220	남	3	인문사회	자취·하숙	X	O	O
	30	3.5938	<b>남</b>	2	<b>공학</b>	<b>자취·하숙</b>	O	O	X
	31	3.1049	여	4	예체능	자취·하숙	X	O	O
2유형 N=8	2	1.3540	여	2	공학	자취·하숙	O	O	O
	10	.4394	남	4	공학	자취·하숙	O	O	O
	12	.7139	여	2	인문사회	통학	O	X	X
	21	.7838	여	1	인문사회	기숙사	O	X	X
	23	1.0063	여	1	인문사회	통학	X	O	O
	24	2.5055	<b>여</b>	3	<b>공학</b>	<b>자취·하숙</b>	X	O	O
	25	.6549	남	1	공학	통학	O	O	X
	28	1.1568	여	1	인문사회	기숙사	O	O	X
3유형 N=6	5	.7462	여	2	인문사회	통학	X	O	O
	6	.5458	남	4	공학	자취·하숙	X	O	X
	13	3.0867	<b>여</b>	2	<b>인문사회</b>	<b>자취·하숙</b>	O	X	O
	15	2.0932	남	3	인문사회	자취·하숙	X	X	X
	26	.8526	여	4	인문사회	자취·하숙	O	O	O
	32	.7647	여	4	인문사회	통학	X	O	O
4유형 N=6	3	.9740	남	3	공학	자취·하숙	X	O	O
	11	1.4783	<b>여</b>	4	<b>자연과학</b>	<b>자취·하숙</b>	X	O	X
	14	.8019	남	4	자연과학	자취·하숙	X	O	O
	17	.4083	남	3	자연과학	자취·하숙	O	O	X
	18	.7415	여	1	예체능	자취·하숙	X	O	O
	20	.5501	여	2	인문사회	기숙사	X	O	O

표 6. 1유형의 표준점수  $\pm 1.00$  이상인 진술문

번호	Q 진술문	표준점수
10	대학 공부를 스스로 해나가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1.86
3	나는 우리 대학에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	1.53
8	부모님은 우리 학교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1.29
23	학교에서 존중받고 있다고 느낀다.	1.25
22	대학 내 다양한 프로그램, 이벤트에 참여하려 노력한다.	1.25
5	학교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안다.	1.19
16	대학 내 시설물, 공용물품을 소중히 다루려고 한다.	1.17
1	나는 우리 대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편이다.	1.00
9	학비, 주거 등 대학 관련 비용 부담으로 학교에 관심을 두기 어렵다.	-1.10
35	대학 내 인간관계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1.21
6	교수님들은 내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고 가르친다.	-1.79
2	나는 학과 동기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느껴진다.	-1.80
17	가끔 교수님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낀다.	-1.91
12	학교, 전공이 맞지 않아, 자퇴나 편입을 종종 생각하게 된다.	-2.04

다고 느낀 경험이 없는 것 같다'고 하였다. P30(3.5938)이 후속 면담에서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금 제 전공이 어릴 때부터 관심이 있던 전공이에요. 그래서 공부나 학교생활이 재밌고, 어렵거나 막히는 게 있을 땐 나름의 도전정신 같은 게 발휘되어서, 다른 생각은 잘 안 드는 거 같아요. <중략> 저는 틈날 때 학교 홈페이지를 자주 보는데, 시간이 되는 교내·외 프로그램은 최대한 참여하려고 노력해요. 어차피 남는 시간에 노느니 뭐라도 하는 게 낫잖아요. 참여해보면 남는 게 있고, 만족감도 높아서 계속 하게 되는 거 같아요.”

셋째, 1유형에서 타 유형의 평균과 차이가 표준점수  $\pm 1.00$  이상의 진술문 항목은 표 7과 같다. Q10 ‘대학 공부를 스스로 해나가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d=2.270$ )’, Q15 ‘다른 사람에게 우리 대학 입학을 추천할 수 있다( $d=1.894$ )’, Q1 ‘나는 우리 대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편이다( $d=1.620$ )’ 등에서 타 유형에 비해 강하게 동의하였다.

반면, Q19 ‘성적, 과제에 대한 압박이 자주 느껴진다( $d=-1.792$ )’, Q12 ‘학교, 전공이 맞지 않아, 자퇴나 편입을 종종 생각하게 된다( $d=-1.539$ )’, Q14 ‘학교를 생각하면 피곤한 기분이 든다( $d=-1.270$ )’를 타 유형에 비해 강하게 동의하지 않았다.

1유형의 이러한 모습은 학교 및 학업생활, 교내 대인관계, 교내 활동 참여 등의 모습이

표 7. 1유형이 타 유형의 평균 대비 차이(±1.00)가 있는 진술문 (단위: 표준점수)

번호	Q 진술문	1유형	타유형	차이
10	대학 공부를 스스로 해나가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1.861	-.408	2.270
15	다른 사람에게 우리 대학 입학을 추천할 수 있다.	.837	-1.057	1.894
3	나는 우리 대학에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	1.532	-.204	1.737
5	학교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안다.	1.185	-.453	1.638
1	나는 우리 대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편이다.	1.004	-.616	1.620
7	지역 공공기관 지역인재전형 등 지방대학의 이점이 좋게 느껴진다.	.607	-.741	1.349
23	학교에서 존중받고 있다고 느낀다.	1.246	.002	1.244
8	부모님은 우리 학교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1.291	.278	1.014
36	학교의 입장에서, 나는 수많은 학생 중 한 명일 뿐일 것이다.	-.333	.756	-1.090
6	교수님들은 내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고 가르친다.	-1.790	-.607	-1.184
14	학교를 생각하면 피곤한 기분이 든다.	-.923	.347	-1.270
12	학교, 전공이 맞지 않아, 자퇴나 편입을 종종 생각하게 된다.	-2.044	-.505	-1.539
9	학비, 주거 등 대학 관련 비용 부담으로 학교에 관심을 두기 어렵다.	-1.096	.663	-1.760
19	성적, 과제에 대한 압박이 자주 느껴진다.	-.776	1.016	-1.792

안정적인 학교 애착(Savi & Karatas, 2017)과 애착 대상과의 관계에서 불안이나 회피가 낮은 안정된 애착 유형(Lopez & Brennan, 2000)의 모습과 유사한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어 학교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의 결과 및 선행 연구 내용을 토대로 1유형을 ‘주도적으로 학교생활하며 성장하는 안정형’으로 명명하였다.

**나. 2유형(N=8) : 학교에 적응하려 애쓰지만, 한계는 수용하기 어려운 양가형**

2유형은 다양한 교내·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학교 내 교·직원, 선·후배 등 대인관계의 질은 괜찮으나, 지방 소도시에 위치한 학교의 지리적, 환경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 및 학교생활 관련 제약을

수용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학교에 적응하려 애쓰지만, 한계는 수용하기 어려운 양가형’으로 명명하였으며, 명명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2유형의 표준점수 ±1.00 이상의 진술문 항목은 표 8과 같다. 2유형은 Q25 ‘지방에 있어서, 대외활동 경험에 한계를 느낀다(z=1.96)’에서 가장 강한 동의를 나타냈고, Q13 ‘어려움이 생겼을 때 상담할 수 있는 교수님이 있다(z=1.53)’, Q29 ‘수도권 대학과 우리 대학을 자주 비교한다(z=1.47)’, Q4 ‘교통여건이 좋지 않아, 학교에 정이 잘 안 간다(z=1.29)’, Q22 ‘대학 내 다양한 프로그램, 이벤트에 참여하려 노력한다(z=1.27)’ 등에서 강한 동의를 나타냈다. 반면, Q17 ‘가끔 교수님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낀다(z=-1.85)’를 가장 강

표 8. 2유형의 표준점수  $\pm 1.00$  이상인 진술문

번호	Q 진술문	표준점수
25	지방에 있어서, 대외활동 경험에 한계를 느낀다.	1.96
13	어려움이 생겼을 때 상담할 수 있는 교수님이 있다.	1.53
29	수도권 대학과 우리 대학을 자주 비교한다.	1.47
4	교통 여건이 좋지 않아, 학교에 정이 잘 안 간다.	1.29
22	대학 내 다양한 프로그램, 이벤트에 참여하려 노력한다.	1.27
31	우리 대학은 조금만 노력해도 장학금,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1.19
19	성적, 과제에 대한 압박이 자주 느껴진다.	1.14
34	학교 주변이 변화가가 아니라는 아쉬움을 종종 느낀다.	1.07
6	교수님들은 내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고 가르친다.	-1.23
35	대학 내 인간관계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1.25
1	나는 우리 대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편이다.	-1.30
33	나는 우리 학교에 자부심을 느낀다.	-1.40
2	나는 학과 동기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느껴진다.	-1.48
15	다른 사람에게 우리 대학 입학을 추천할 수 있다.	-1.53
17	가끔 교수님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낀다.	-1.85

하게 비동의 하였고, Q15 ‘다른 사람에게 우리 대학 입학을 추천할 수 있다( $z=-1.53$ )’, Q33 ‘나는 학교에 자부심을 느낀다. ( $z=-1.40$ )’, Q35 ‘대학 내 인간관계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 $z=-1.25$ )’ 등에서 강한 비동의를 나타냈다.

둘째, 2유형에서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P24(2.5055)와 P2(1.3540)가 Q 표본 분류에서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 및 P24와 전화로 진행한 후속 면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P24는 Q25와 Q4를 가장 동의한 이유로 ‘지역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하는 것 보다 못하고, 교통비, 시간 등이 너무 많이 드는 한계를 느끼고 있다. 교통이 좋지 않아서, 시내를 나갈 때 시간과 비용 부담이

계속 되다보니 정이 가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P2는 Q22를 가장 동의한 이유로 ‘학교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이벤트라면 최대한 신청하고 참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반면, Q33을 가장 비동의한 이유로 ‘학교에서 21년부터 내년까지 학부, 학과 관련 통폐합 등 제도를 계속 바꾸고 있다. 그런 게 학생을 위해 필요한 제도인지를 알 수 없고, 현재 학교 상황을 보면 어떤 부분에서 자부심을 느껴야 할지 모르는 상태이다’고 하였다. 또한, P2는 Q15를 가장 비동의하며 ‘학교가 시내와 멀리 떨어져 있고, 교통도 좋은 편이 아니라서 다른 지역으로 가기가 무척 힘이 든다. 취업박람회 같은 곳을 가고 싶은 마음은 큰데, 학교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면, 학기 중에 따로 찾아가기 매우 힘들었다. 만약 제가 과거로 돌아가 다른 대학교를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굳이 우리 대학을 다시 선택하진 않을 것 같다'고 하였다. P24가 후속 면담에서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름대로 다양한 교내·외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교내·외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교내 근로 활동을 하며, 직원분들이나 선, 후배 등 사람들과도 관계가 좋은 편이에요. <중략> 학교에서 계속 통·폐합하거나 새로운 학과가 생기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보고, 군대에 간 동기들은 ‘복학하면 과가 사라져 있는 거 아냐?’라고 하거나, ‘졸업 후에 우리 학과가 사라지면 어떻게 하나?’라는 말을 듣게 되요. 이런 통폐합 같은 과정을 보면, 학교가 우리를 무시하고 있구나, 우리 의견을 듣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요.”

셋째, 2유형에서 타 유형의 평균과 차이가

표준점수  $\pm 1.00$  이상의 진술문 항목은 표 9와 같다. Q13 ‘어려움이 생겼을 때 상담할 수 있는 교수님이 있다( $d=1.885$ )’, Q29 ‘수도권 대학과 우리 대학을 자주 비교한다( $d=1.678$ )’, Q25 ‘지방에 있어서, 대외활동 경험에 한계를 느낀다( $d=1.657$ )’, Q4 ‘교통 여건이 좋지 않아, 학교에 정이 잘 안 간다( $d=1.358$ )’ 등을 타 유형에 비해 강하게 동의하였다.

반면, Q8 ‘부모님은 우리 학교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d=-1.990$ )’, Q1 ‘나는 우리 대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편이다( $d=-1.450$ )’, Q15 ‘다른 사람에게 우리 대학 입학을 추천할 수 있다( $d=-1.264$ )’ 등을 타 유형에 비해 강하게 동의하지 않았다.

2유형의 이러한 모습은 양가형 애착이 대상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만, 관계 속에서 불만족감을 느끼고(신노라, 안창일, 2004), 애착대상과의 관계에서 긍정정서를 덜 보이고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보이는 것(조영주, 최해림, 2001)과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어 학교와 양가적 애착을 형성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의 결과 및 선행 연구 내용을 토대로

표 9. 2유형이 타 유형의 평균 대비 차이( $\pm 1.00$ )가 있는 진술문 (단위: 표준점수)

번호	Q 진술문	2유형	타유형	차이
13	어려움이 생겼을 때 상담할 수 있는 교수님이 있다.	1.529	-.356	1.885
29	수도권 대학과 우리 대학을 자주 비교한다.	1.472	-.206	1.678
25	지방에 있어서, 대외활동 경험에 한계를 느낀다.	1.956	.300	1.657
4	교통 여건이 좋지 않아, 학교에 정이 잘 안 간다.	1.287	-.071	1.358
11	대외활동, 취업 시 대학 인지도의 영향을 받게 될까 걱정된다.	.834	-.261	1.096
15	다른 사람에게 우리 대학 입학을 추천할 수 있다.	-1.532	-.267	-1.264
1	나는 우리 대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편이다.	-1.298	.151	-1.450
33	나는 우리 학교에 자부심을 느낀다.	-1.402	.446	-1.847
8	부모님은 우리 학교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961	1.029	-1.990

2유형을 ‘학교에 적응하려 애쓰지만, 한계는 수용하기 어려운 양가형’으로 명명하였다.

**다. 3유형(N=6) : 학교의 장점은 인정하지만, 친밀감 형성은 어려운 불안정형**

3유형은 대학의 장점을 인식하려 노력하고, 교내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학생들과 학업 적응이 어렵고, 이러한 고민을 적절히 나누고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대인관계가 형성되지 못하여,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학교생활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학교의 장점은 인정하지만, 친밀감 형성은 어려운 불안정형’으로

명명하였으며, 명명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3유형의 표준점수  $\pm 1.00$  이상의 진술문 항목은 표 10과 같다. 3유형은 Q31 ‘우리 대학은 조금만 노력해도 장학금,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z=1.74$ )’에서 가장 강한 동의를 나타냈고, Q22 ‘대학 내 다양한 프로그램, 이벤트에 참여하려 노력한다( $z=1.54$ )’, Q14 ‘학교를 생각하면 피곤한 기분이 든다( $z=1.49$ )’, Q30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진다( $z=1.26$ )’ 등에서 강한 동의를 나타냈다. 반면, Q40 ‘중, 고등학교 친구와 대학 친구를 종종 비교하게 된다( $z=-1.86$ )’를 가장 강하게 비동의하였고,

표 10. 3유형의 표준점수  $\pm 1.00$  이상인 진술문

번호	Q 진술문	표준점수
31	우리 대학은 조금만 노력해도 장학금,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1.74
22	대학 내 다양한 프로그램, 이벤트에 참여하려 노력한다.	1.54
14	학교를 생각하면 피곤한 기분이 든다.	1.49
30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진다.	1.26
4	교통 여건이 좋지 않아, 학교에 정이 잘 안 간다.	1.21
24	대학 생활을 통해 성취하고 있는 게 부족하다고 느낀다.	1.21
33	나는 우리 학교에 자부심을 느낀다.	1.18
28	내가 학교를 그만둔다면, 아쉬워할 동기나 선·후배가 있다.	1.07
27	학교의 문제, 어려움이 나의 것처럼 여겨진다.	-1.11
17	가끔 교수님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낀다.	-1.12
10	대학 공부를 스스로 해나가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1.14
5	학교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안다.	-1.19
15	다른 사람에게 우리 대학 입학을 추천할 수 있다.	-1.20
13	어려움이 생겼을 때 상담할 수 있는 교수님이 있다.	-1.45
32	학교 직원들의 사무적인 태도가 종종 불편하게 느껴진다.	-1.63
39	대학 내 취(창)업과 관련되지 않은 활동은 불필요하게 느껴진다.	-1.83
40	중, 고등학교 친구와 대학 친구를 종종 비교하게 된다.	-1.86

Q39 ‘대학 내 취(창)업과 관련되지 않은 활동은 불필요하게 느껴진다( $z=-1.83$ )’, Q13 ‘어려움이 생겼을 때 상담할 수 있는 교수님이 있다( $z=-1.45$ )’, Q5 ‘학교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안다( $z=-1.19$ )’, Q10 ‘대학 공부를 스스로 해나가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z=-1.14$ )’ 등에서 강한 비동의를 나타냈다.

둘째, 3유형에서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P13(3.0867)과 두 번째로 높은 P15(2.0932)가 Q 표본 분류에서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 및 P13과 전화로 진행한 후속 면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P13은 Q22와 Q31을 가장 동의한 이유로 ‘학교에 많은 장학 혜택이 있는데, 공부뿐만 아니라 교내 프로그램이나 대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좋다고 느낀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반면, P13은 Q40과 Q5를 가장 비동의한 이유로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을 하다보니 학교생활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여 학교에 대해 아는 게 많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였고, P15는 Q10을 가장 비동의한 이유로 ‘과 특성상 나를 포함해서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혼자 인강을 들으며 수업과 공무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니 학교 공부를 잘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P13이 후속 면담에서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리 학교가 안 좋은 학교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나름 이름 있는 사립대학 캠퍼스이고 장학 혜택 같은 것도 많은 거 같고 <중략> 그런데 코로나 때 입학하고

학교를 많이 안 가서 그런지, 입학하기 전 이랑 비교해 봐도 지금도 학교에 대해 아는 게 많이 없는 거 같기는 해요. 이런 고민을 나눌 대학 친구도 별로 없고, 앞으로 좀 나아지긴 하겠지만, 지금은 내가 대학에 잘 다니고 있는 게 맞는건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전 낯을 가리는 편이라서 잘 모르는 사람이나 교수님께 질문하기가 좀 그런데.. 그래도 이번 학기에는 대면 수업을 해서 작년보다는 훨씬 나아진 거 같아요. 작년까지는 제가 대학생인 게 실감이 잘 안 나더라고요.”

셋째, 3유형에서 타 유형의 평균과 차이가 표준점수  $\pm 1.00$  이상의 진술문 항목은 표 11과 같다. Q14 ‘학교를 생각하면 피곤한 기분이 든다( $d=1.950$ )’, Q33 ‘나는 우리 학교에 자부심을 느낀다( $d=1.590$ )’, Q2 ‘나는 학과 동기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느껴진다( $d=1.535$ )’, Q24 ‘대학생활을 통해 성취하고 있는 게 부족하다고 느낀다( $d=1.079$ )’ 등을 타 유형에 비해 강하게 동의하였다.

반면, Q13 ‘어려움이 생겼을 때 상담할 수 있는 교수님이 있다( $d=-2.080$ )’, Q10 ‘대학 공부를 스스로 해나가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d=-1.728$ )’, Q29 ‘수도권 대학과 우리 대학을 자주 비교한다( $d=-1.461$ )’, Q39 ‘대학 내 취(창)업과 관련되지 않은 활동은 불필요하게 느껴진다( $d=-1.366$ )’ 등을 타 유형에 비해 강하게 동의하지 않았다.

3유형의 이러한 모습은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 및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한 두려움을 경험하는 불안정한 애착(김은영, 김은주, 2019)과 대학생은 자신과 외부 환경과의 조화가 이뤄지지 않을수록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표 11. 3유형이 타 유형의 평균 대비 차이(±1.00)가 있는 진술문 (단위: 표준점수)

번호	Q 진술문	3유형	타유형	차이
14	학교를 생각하면 피곤한 기분이 든다.	1.492	-.458	1.950
33	나는 우리 학교에 자부심을 느낀다.	1.176	-.414	1.590
2	나는 학과 동기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느껴진다.	-.259	-1.793	1.535
31	우리 대학은 조금만 노력해도 장학금,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1.741	.347	1.394
35	대학 내 인간관계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143	-1.059	1.201
24	대학 생활을 통해 성취하고 있는 게 부족하다고 느낀다.	1.208	.129	1.079
39	대학 내 취(창)업과 관련되지 않은 활동은 불필요하게 느껴진다.	-1.832	-.466	-1.366
29	수도권 대학과 우리 대학을 자주 비교한다.	-.882	.579	-1.461
5	학교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안다.	-1.191	.339	-1.530
25	지방에 있어서, 대외활동 경험에 한계를 느낀다.	-.525	1.127	-1.651
10	대학 공부를 스스로 해나가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1.137	.591	-1.728
40	중, 고등학교 친구와 대학 친구를 종종 비교하게 된다.	-1.859	.009	-1.868
13	어려움이 생겼을 때 상담할 수 있는 교수님이 있다.	-1.445	.635	-2.080

는 선행 연구 결과(최길순, 2010)와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어 학교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의 결과 및 선행 연구 내용을 토대로 3유형을 ‘학교의 장점은 인정하지만, 친밀감 형성은 어려운 불안정형’으로 명명하였다.

**라. 4유형(N=6) : 학교생활의 문제 인식은 있지만, 소속감 없는 회피형**

4유형은 학교생활 관련 제반 비용과 성적에 대한 압박, 학교와 관련된 다양한 긍정적이지 않은 경험과 생각들로 대학 내 활동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학업성적, 취업 등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보상, 성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학교의 상황, 어려움 등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등 학교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학교생활의 문제 인식은 있지만, 소속감 없는 회피형’으로 명명하였으며, 명명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4유형의 표준점수 ±1.00 이상의 진술문 항목은 표 12와 같다. 4유형은 Q9 ‘학비, 주거 등 대학 관련 비용 부담으로 학교에 관심을 두기 어렵다(z=2.25)’에서 가장 강한 동의를 나타냈고, Q19 ‘성적, 과제에 대한 압박이 자주 느껴진다(z=2.01)’, Q40 ‘중, 고등학교 친구와 대학 친구를 종종 비교하게 된다(z=1.26)’, Q36 ‘학교의 입장에서, 나는 수 많은 학생 중 한 명일 뿐일 것이다(z=1.22)’ 등에서 강한 동의를 나타냈다. 반면, Q2 ‘나는 학과 동기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느껴진다(z=-2.10)’를 가장 강하게 비동의하였고, Q27 ‘학교의 문제, 어려움이 나의 것처럼 여

표 12. 4유형의 표준점수 ±1.00 이상인 진술문

번호	Q 진술문	표준점수
9	학비, 주거 등 대학 관련 비용 부담으로 학교에 관심을 두기 어렵다.	2.25
19	성적, 과제에 대한 압박이 자주 느껴진다.	2.01
18	가끔 학교, 학과의 미래가 신경이 쓰인다.	1.49
28	내가 학교를 그만둔다면, 아쉬워할 동기나 선·후배가 있다.	1.37
40	중, 고등학교 친구와 대학 친구를 종종 비교하게 된다.	1.26
36	학교의 입장에서, 나는 수많은 학생 중 한 명일 뿐일 것이다.	1.22
34	학교 주변이 변화가가 아니라는 아쉬움을 종종 느낀다.	1.19
16	대학 내 시설물, 공용물품을 소중히 다루려고 한다.	1.14
37	대학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	1.08
4	교통 여건이 좋지 않아, 학교에 정이 잘 안 간다.	-1.06
3	나는 우리 대학에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	-1.10
32	학교 직원들의 사무적인 태도가 종종 불편하게 느껴진다.	-1.31
27	학교의 문제, 어려움이 나의 것처럼 여겨진다.	-1.79
2	나는 학과 동기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느껴진다.	-2.10

겨진다( $z=-1.79$ ), Q3 ‘나는 우리 대학에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 $z=-1.10$ )’ 등에서 강한 비동의를 나타냈다.

둘째, 4유형에서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P11(1.4783)과 두 번째로 높은 P3(0.9740)이 Q 표본 분류에서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 및 P11과 전화로 진행한 후속 면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P11은 Q9와 Q19를 가장 동의한 이유로 ‘학교의 장학금 제도가 너무 적고, 기숙사 시설도 적어서 자취를 하려면 월세가 너무 부담된다.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을 위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적 압박감이 심해서 시험 기간에 밤새서 공부를 하게 된다’고 하였다. P3 역시 Q9와 Q19를 가장 동의하며,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항이다 보니

대외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강한 압박을 자주 느끼게 된다.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손을 빌리는 부모님께도 눈치가 보이고 생활비 등이 벽차서, 알바를 계속 해야 한다’고 하였다. 반면, P11은 Q2를 가장 비동意的한 이유로 ‘학과 동기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학과 동기들과는 잘 어울리며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하였다. P11이 후속 면담에서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립이다보니 등록금이 비싸고, 시골인데도 도시처럼 월세가 너무 비싸요. 장학금까지는 아니어도 좋은 성적을 받아야 이렇게 들어가는 돈이 아깝지 않을 거 같은데... 그래서 시험 기간 마다 날을 새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중략> 학교에 신경을

쓸 바에 차라리 공부나 알바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 되요. 알바하고 학교 과제나 공부를 하다보면 학교에서 하는 활동은 안하게 되요. 과 친구들은 졸업 후에도 같은 계통에서 일을 할 사람들이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과 사람들과는 어울릴 일이 거의 없죠. 어차피 졸업하면 볼 사람들이 아니기도 하고요.”

셋째, 4유형에서 타 유형의 평균과 차이가 표준점수  $\pm 1.00$  이상의 진술문 항목은 표 13과 같다. Q9 ‘학비, 주거 등 대학 관련 비용 부담으로 학교에 관심을 두기 어렵다(d=2.707)’, Q40 ‘중, 고등학교 친구와 대학 친구를 종종 비교하게 된다(d=2.286)’, Q19 ‘성적, 과제에 대한 압박이 자주 느껴진다(d=1.927)’, Q39 ‘대학 내 취(창)업과 관련되지

않은 활동은 불필요하게 느껴진다(d=1.152)’ 등을 타 유형에 비해 강하게 동의하였다. 반면, Q31 ‘우리 대학은 조금만 노력해도 장학금,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d=-1.779)’, Q3 ‘나는 우리 대학에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d=-1.778)’, Q22 ‘대학 내 다양한 프로그램, 이벤트에 참여하려 노력한다(d=-1.569)’, Q27 ‘학교의 문제, 어려움이 나의 것처럼 여겨진다(d=-1.029)’ 등을 타 유형에 비해 강하게 동의하지 않았다.

4유형의 이러한 모습은 회피형 애착이 학업과 진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는 긍정적인 모습이 있으나, 학교에 대해서는 친밀한 관계 형성을 피하고(김은영, 김은주, 2019), 어려움을 부인하며 도움 요청을 꺼리고 회피하며 거리를 두는(Vogel & Wei, 2005) 것과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어 학교와 회피적 애착을 형성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의 결과

표 13. 4유형이 타 유형의 평균 대비 차이( $\pm 1.00$ )가 있는 진술문 (단위: 표준점수)

번호	Q 진술문	4유형	타유형	차이
9	학비, 주거 등 대학 관련 비용 부담으로 학교에 관심을 두기 어렵다.	2.254	-.453	2.707
40	중, 고등학교 친구와 대학 친구를 종종 비교하게 된다.	1.256	-1.029	2.286
18	가끔 학교, 학과의 미래가 신경이 쓰인다.	1.491	-.513	2.004
19	성적, 과제에 대한 압박이 자주 느껴진다.	2.013	.087	1.927
6	교수님들은 내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고 가르친다.	.005	-1.205	1.210
39	대학 내 취(창)업과 관련되지 않은 활동은 불필요하게 느껴진다.	.056	-1.095	1.152
27	학교의 문제, 어려움이 나의 것처럼 여겨진다.	-1.793	-.765	-1.029
23	학교에서 존중받고 있다고 느낀다.	-.772	.674	-1.446
22	대학 내 다양한 프로그램, 이벤트에 참여하려 노력한다.	-.217	1.352	-1.569
4	교통 여건이 좋지 않아, 학교에 정이 잘 안 간다.	-1.061	.712	-1.773
3	나는 우리 대학에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	-1.104	.675	-1.778
31	우리 대학은 조금만 노력해도 장학금,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639	1.140	-1.779

표 14. 일치항목

번호	Q 진술문	표준점수
28	내가 학교를 그만둔다면, 아쉬워할 동기나 선·후배가 있다.	.95
16	대학 내 시설물, 공용물품을 소중히 다루려고 한다.	.93
37	대학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	.84
17	가끔 교수님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낀다.	-1.45

및 선행 연구 내용을 토대로 4유형을 ‘학교생활의 문제 인식은 있지만, 소속감 없는 회피형’으로 명명하였다.

#### 마. 일치항목

일치항목(consensus items)이란 각 유형이 공통적으로 합의한 항목들을 말하며, 각 유형에서 일치한 항목은 표 14의 4개이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지방 사립대학 재학생의 학교애착 인식 유형과 특성을 Q 방법론을 통해 분류하였다. 연구 결과 네 가지 학교애착 인식 유형으로 분류됐으며,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유형은 ‘주도적으로 학교생활하며 성장하는 안정형’으로 명명하였다. 이들은 고등학교와 달리 자율적으로 학업 스케줄을 계획하여, 수강 과목을 결정하고 공부하는 대학의 특성에 적응하여, 전공, 학업에 대한 만족 수준이 높고, 대학 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대학 생활을 위한 노력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이 보이는 전공, 학업에 대한 만족감은 학업적 자기조절로 이어져 학업 과정 중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하여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조절하며,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Eisenberg et al., 2002). 또한, 안정애착유형의 대학생은 관계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높은 자기 가치감과 사회적 자신감을 갖고(신노라, 안창일, 2004), 대학생은 애착의 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덜 지각한다는(김진숙, 안창일, 2008) 것을 통해 대학 내 대인관계 및 심리정서적 안정감을 경험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 인해 학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고, 실제 외부에 표현도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학교에 대해 형성한 긍정성은 외적으로 표현되는 경우, 학교에 대한 대외의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2유형은 ‘학교에 적응하려 애쓰지만, 한계는 수용하기 어려운 양가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유형은 교내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대학 내 교수, 교직원 등 대인관계가 부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이런 모습은 대학에 대한 애착이 클수록 학교생활 및 활동에 더 많은 참여를 하고(박관도, 김학덕, 2017), 대학 내 대인관계, 사회적 적응 등을 잘한다는(박신영, 2018; Tao et al, 2000) 연구결과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 학교애착의 긍정적인 면이 나타난다. 그렇지만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지방 소도시라는 지역적 한계로 인하여 교

통의 불편과 이에 따른 시간, 비용 등이 수도권, 대도시에 비해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 대한 불편감을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수도권 소재 대학과 재학 중인 대학을 비교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에서의 관계, 과업, 생활 적응이 안정적인 대학 애착의 중요한 요인(Baker & Sirky, 1984)인 점을 감안한다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들은 다양한 교내·외 활동과 대인관계를 통해 학교에 관한 긍정적 정서도 있으나, 학교의 한계로 인하여 경험하는 불편사항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 양가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오영재(2006)는 다수의 대학생들은 낭만적인 캠퍼스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통해 지식을 쌓아 가는 대학생활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를 수용하고 타협한다면, 불편감의 수준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양가적 애착의 대학생은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정도가 높고(김진숙, 안창일, 2008),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부정하거나 회피적인 모습을 나타내는데(신노라, 안창일, 2004), 이로 인해 현실적 한계를 인식은 하지만, 그 부분을 수용하고 타협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학교에 대한 적응과 부적응의 양가적 특성은 불일치감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데, 이는 다른 애착 유형에 비해 양가적 애착이 불안이 높은 특성이 있다(조영주, 최해림, 2001)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처럼 실망감은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크게 지각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부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스스로 느끼는 불편감 외에도 타인의 시

선에 불평 불만이 많은 ‘투덜이’로 비쳐져 이들의 노력에 대한 평가를 절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스트레스, 불안 관리가 필요할 수 있다. 2유형에서 인자가중치가 제일 높은 P24는 학교의 학과 통·폐합 등 변화의 과정이 학생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알 수 없고, 어떤 부분에서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느껴야 할지 모르는 상태라고 하며, 학교가 학생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것 같다고 말하였다. 즉, 이들은 학교에 대한 관심이 있는 만큼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학교의 학과 통·폐합 등을 비판적으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학교 생존·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학과 개편 등의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필요성과 취지 등을 이해시키고, 의견을 귀담아 들으려는 학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유형은 ‘학교의 장점은 인정하지만, 친밀감 형성은 어려운 불안정형’으로 명명하였다. 이들은 학교의 장점을 인식하고 있고, 교내 활동에 관심과 참여를 보이나, 대학 생활과 학업 관련 적응이 어려워 불편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어려움과 불편감을 터놓고 나눌 교내 대인관계가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는데, 이는 자신감의 저하를 불러오고, 자신이 학교에서 이해받지 못한다는 고립감을 경험하게 하여(이은지, 서영석, 2014), 안정적인 학교애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학생들은 후배, 동기 및 선배와의 만남을 중요한 성취로 인식하는(오영재, 2006) 점을 고려한다면, 학업 적응의 어려움에 더해 관계 형성의 어려움은 이들이 대학생활을 하며, 성취 경험이 부족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불안정 애착은 문제해결을 위한 대처 전략이 다른 유형에 비해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김광은, 2004). 본인의 노

력 대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 이러한 어려움을 인정하고 도움을 원하는 불안정한 애착의 모습(Vogel & Wei, 2005)으로 인해 ‘전전공공’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대학 내 친구와 같은 사회적 지지 자원은 가족과 같은 직접적 정서 지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에서 완충작용을 하고(Wilcox et al., 2005), 교내 대인관계 등의 사회적 요인은 학교에 속했다는 안정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이하연 외, 2021). 특히, COVID-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환경은 학생들이 정상적인 대학생활을 하지 못하여, 다양한 인간관계 형성 등 학교에 대한 애착 형성 기회의 부족을 불러왔는데(이하연 외, 2021), 3유형은 이러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학교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했음을 생각해 보게 한다. 대학 내 교직원, 또래 관계에서 경험하는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는 대학 몰입, 학습 조절 및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박하나, 임규연, 2020), 이런 대인관계와 학업 성취 등이 만족스러울 때 학교에 대한 애착은 증가하게 된다(최윤정, 2012). 이들이 나타내는 학교에 대한 피로감과 관련하여, 대학생의 정서조절은 대학생활 적응의 다양한 측면을 예측하므로, 학생이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박하나, 임규연, 2020)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

4유형은 ‘학교생활의 문제 인식은 있지만, 소속감 없는 회피형’으로 명명하였다. 이들은 학교생활 제반 비용과 성적에 대한 부담감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금전적, 성취적 측면에 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 내 성적, 취업 등과 관련된 활동 외에는 큰 관심이 없으며, 아르바이트나 대외 활동 등 보상,

성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결과보상, 성과와 관련된 활동에는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대인관계, 교내활동 등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학교를 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회피형 애착이 클수록 사회적 지지를 적게 추구하고(김진숙, 안창일, 2008),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양이 적은 편이지만, 문제 해결전략은 안정형과 큰 차이가 없다(김광은, 2004). 이것은 이들이 현실적인 성과, 보상에 초점을 맞춘 성취 지향적인 모습이 있기에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회피적인 애착은 다른 애착 유형에 비해 대학 생활 전반에서 부적응을 경험할 수 있고(신선임, 2015), 대학생의 회피애착은 공감능력과 심리적 안녕감에 부적 상관이고, 우울과는 정적 상관(채영문, 박수진, 2013)이라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 더불어 이들은 학교와의 친밀감을 덜 추구하고 자기 노출을 꺼리는 특성(신노라, 안창일, 2004)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학교애착 인식 유형에 따른 지원방안을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이라는 목표와 연결 지어 보면 다음과 같다. 2유형은 학교의 지원 제도 및 프로그램 제도 정비 과정에 학생을 참여시켜, 학교의 노력과 발전 과정에 학생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기존의 학생회 등 특정한 학생들만의 참여가 아닌, 2유형 학생들의 참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와 대학이 연계하여 대학생, 청년 대상 서포터스 활동,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PBL 교과 등을 협력·운영하고, 이러한 활동에 2유형이 참여한다면 지역의 특수성, 여건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되어, 학교

애착을 안정적으로 재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3유형은 학교생활, 학업, 관계 적응 등 관련 프로그램을 정비하고, 상담 및 코칭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보다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마이크로디그리 등 졸업 전 성취 가능한 진로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활동 중심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대인관계 형성 기회를 제공하여, 이러한 활동에 3유형이 참여한다면 대학생활과 학업 적응력이 향상되어, 학교애착을 안정적으로 재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4유형은 사회적 지지 추구하고 상담·코칭 등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는데, 도움이 되는 유인가 높은 제도·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도교수와 프로그램 담당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 산업체와 연계한 교과 및 비교과 과정을 시간, 비용 등의 큰 투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운영하여, 실제 진로·취·창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활동에 4유형이 참여한다면, 학교 생활에 관한 거리감을 좁혀, 학교애착을 안정적으로 재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학교애착 인식유형을 심도있게 살펴본 의의가 있다. 애착 연구는 과거에는 초기 주양육자와 아동의 관계를 대상으로 연구되었으나, 점차 성인기 애착으로 확장되었고, 이제는 장소, 지역, 조직 그리고 학교 등 사람 이외의 대상에게도 확장되어 연구되고 있다. 이 중 학교애착은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양적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는 대학생 시기에 직·간접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형성한 학교애착을 심도 깊게 탐구하여, 학교애착 인식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에

서 재학생들의 학교애착을 이해하고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도탈락 예방·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앞으로 대학생의 보다 의미 있고 안정적인 대학생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의의가 있다.

반면, 본 연구는 경북 지역 소도시 소재의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지방 사립대학이라 하더라도 학교의 규모, 소재지, 입시 결과 수준, 대외 인지도 등은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학교애착 인식 유형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참여한 학생들의 지난 학기 학점이 대부분 B0 이상으로, 저성취 및 학사 경고자는 참여하지 않았는데, 우수한 학업성취를 나타내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결과를 지방 사립대학 재학생들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를 통하여 다른 지역 소재 대학, 한 대학 내 다양한 학업성취를 나타내는 학생을 포함하여 재학생들의 학교애착 인식 유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공립대학과 수도권 사립대학 재학생의 학교애착 인식 유형을 살펴본다면, 대학생의 학교애착 인식 유형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애착 이전에 형성된 부모와의 애착, 또래애착과 학교애착 유형과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인간의 다양한 애착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길병욱, 이소희, 이송이, 정희정 (2020). Q 방법론의 이해와 적용.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 김광은 (2004). 성인 애착 유형과 요인에 따른 성격 특성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53-69.
- 김수연 (2006). 대학생의 학업지속과 중도탈락 요인 분석. *한국교육*, 33(4), 33-62.
- 김순은 (2010). Q 방법론의 이론과 철학.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4), 1-25.
- 김은영, 김은주 (2019). 대학생들의 불안정애착, 우울, 삶의 만족도, 성별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7(5), 295-301.
- 김유천 (2022). 관리자 코칭에 관한 주관성 및 관리자 코칭 행동 변인 연구: Q 방법론과 메타분석.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김진숙, 안창일 (2008). 애착 유형에 따른 억압의 강도와 스트레스 지각 및 대처방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4), 1019-1037.
- 김홍규 (2008). Q-블럭과 Q-도구의 일치도 연구. *주관성연구*, 16, 5-16.
- 노운정 (2022). 대학생 중도탈락 영향 요인 분석 : 진로성숙도를 중심으로.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6(5), 876-889.
- 박관도, 김학덕 (2017). 축제영향인식과 학교애착도가 대학생들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12(4), 69-78.
- 박신영 (2018). 애착이론에 근거한 대학생의 대인관계향상 프로그램이 애착수준, 대인관계,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 박하나, 임규연 (2020). 지각된 교수-학생 관계와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조절 및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교육방법연구*, 32(4), 533-556.
- 신노라, 안창일 (2004). 성인 애착 유형과 자기개념, 효능감, 대처 양식, 사회적 지지 수준과 대인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4), 949-968.
- 신선임 (2015). 성인애착 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대학생활 적응. *청소년학연구*, 22(4), 1-21.
- 오영재 (2006). 대학 신입생들의 대학생활경험에 대한 분석 연구. *교육문제연구*, 25, 141-164.
- 이기종 (2015). 대학 구조 개혁 평가의 배경, 쟁점 및 대안. *교육평가연구*, 28(3), 933-954.
- 이은지, 서영석 (2014). 불안정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과 대인관계문제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자기자비와 낙관적 성향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2), 413-439.
- 이윤주, 민하영, 이영미 (2004). 대학생의 성인애착유형, 자아탄력성수준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5(4), 125-144.
- 이하연, 고주은, 주민호 (2021). COVID-19로 인한 비대면 학습 환경에서 대학생의 학교소속감과 대학생활만족도가 학업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34(1), 231-251.
- 장휘숙 (1997). 애착의 전생애 모델과 대물림: 전생애 발달심리학적 조망에서 애착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6(1), 80-97.
- 조영주, 최혜림 (2001). 부모와의 애착 및 심리적 독립과 성인애착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71-91.
- 채영문, 곽수진 (2013). 대학생의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 공감능력과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22(6), 599-613.

- 최길순 (2010). 전문대학생의 중도탈락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업과혁신연구*, 3(1), 95-118.
- 최경선 (2019). **보육교직원의 인성리더십에 관한 주관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최윤정 (2012).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 작용하는 보호요인의 조절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3(3), 77-104.
- 연보라, 장희원 (2015). 대학생의 중도탈락 시기 및 영향요인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5(1), 129-155.
- 한국교육개발원 (2020).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한계대학 대응 방안 연구. RR2020-14, <https://www.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PubForm.do?plNum0=14144>
- Ainsworth, M. D. S., Blehar, M. C., &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Baker, R. W., & Sirky, B. (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79-189.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226-244.
- Brown, S. R. (1996). Q methodology and qualitative research. *Qualitative Health Research*, 6(4), 561-567.
- Dennis, K. E., & Goldberg, A. P. (1996). Weight control self-efficacy types and transitions affect weight-loss outcomes in obese women. *Addictive Behaviors*, 21(1), 103-116.
- Eisenberg, N., Spinrad, T. L., & Morris, A. S. (2002). Regulation, resiliency, and quality of social functioning. *Self and Identity*, 1(2), 121-128.
- Fike, D. S., & Fike, R. (2008). Predictors of first-year student retention in the community college. *Community College Review*, 36(2), 68-88.
- Jimerson, S. R., Campos, E., & Greif, J. L. (2003). Toward an understanding of definitions and measures of school engagement and related terms. *The California School Psychologist*, 8(1), 7-27.
- Savi, F., & Karatas, Z. (2017). Adolescents' Self-Esteem, School Anger and Life Satisfaction as Predictors of Their School Attachment. *Egitim ve Bilim*, 42(189), 121-136.
- Stenner, P. H. D., Dancey, C. P., & Watts, S. (2000). The understanding of their illness amongst people with irritable bowel syndrome: a Q methodological study. *Social Science & Medicine*, 51(3), 439-452.
- Tao, S., Dong, Q., Pratt, M. W., Hunsberger, B., & Pancer, S. M. (2000). Social support: Relations to coping and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university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5(1), 123-144.
- Yu, G. (2021). Resilience to Peer Victimization: The Role of School Attachment.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Kansas.
- Vogel, D. L., & Wei, M. (2005). Adult Attachment and Help-Seeking Intent: The Mediating Roles of Psychological Di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3), 347-357.
- Wilcox, P., Winn, S., & Fyvie Gauld, M. (2005).

'It was nothing to do with the university, it was just the people': the role of social support in the first year experience of higher education. *Studies in Higher Education*, 30(6), 707-722.

원 고 접 수 일 : 2024. 01. 22.

수정원고접수일 : 2024. 04. 15.

최종게재결정일 : 2024. 04. 25.

## A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Perceived School Attachment Types Using the Q Methodology

Dong-uk Lee<sup>1)</sup>                      Song-yi Lee<sup>2)</sup>

<sup>1)</sup>Konyang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sup>2)</sup>Dongguk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In this study, in order to examine university students' perceived school attachment types, school attachment perception types were classified using the Q methodology and their characteristics were examined. For this purpose, a Q population was formed by analyzing previous research and the results of in-depth interviews. A Q sample of 40 questions was developed. Then 32 university students were selected as P samples through snowball sampling. In Q sorting, the Q sample was placed according to the level of consent according to participants' subjective perceptions through forced distribution within an 11-point scale distribution map. This paper describes why the two most and least agreed-upon items were selected. QUANL analysis classified four types of perceived school attachment. Type 1 is characterized by stability, taking the initiative in school life, growth, high academic satisfaction, participation in various school activities, and stabl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ype 2 is characterized by ambivalence and making efforts to adapt to school life but finding it difficult to accept its limitations, participation in a variety of on- and off-campus activities, and stabl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ype 3 is characterized by instability, recognition of the school's strengths, difficulty forming relationships with other students, and making efforts but having difficulty adapting to school life. Type 4 is characterized by awareness and avoidance of the problems of school life, no sense of belonging, emotional distance from school life, and a focus on realistic and tangible outcomes and rewards, such as school costs, grades, and future employment. This paper discusse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chool attachment type and considerations they should be given. This study's results can be used to understand each school attachment type's characteristics and how to develop support for each.

*Key words* : university students, school attachment, perceived school attachment type, Q methodology